AIDC·로봇 안정적 사업 확대 속 미래기술 '블록체인' 추진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㊴ LG CNS

3년간 영업이익 年 평균 0.35%p ↑
클라우드·AI 부문 매출 비중 60%
합작법인으로 AIDC 투자 부담 완화
전략적 파트너십 통해 RX 사업 확보
유기적 조직 체계 'AI 센터'로 뒷받침
국내 첫 CBDC 실거래 테스트 진행



현신균 LG CNS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전환(RX)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LG CNS

LG CNS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 비중 확대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AI 센터'의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해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 클라우드·AI 확대에도 수익 창출… 영업이익률 9.1% 달성

LG CNS의 최대 강점은 꾸준한 수익 창출력이다.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8.3%)부터 지난해(9.0%)까지 연 평균 0.35%p 올랐다.

특히 클라우드·AI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을 약 60%까지 키우면서 영업이익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수익성을 방어하고, 기존 사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합작법인(JV)을 통해 부지 확보와 자본 조달을 추진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구축하는 30㎿급 AIDC도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낮췄다.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조·물류 등 분야의 로봇 전환(RX) 사업도 마찬가지다. 로봇 하드웨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다. 미국의 스킬드 AI, 덱스메이트 등과 협력해 범용 AI 로봇부터 바퀴를 장착한 휠타입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하다. LG CNS는 여기에 로봇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한다.

◆ 'AI센터' 출범 2년…전사 업무 효율화·솔루션 상품성 확보

LG CNS의 이같은 성과는 2024년 설립한 기술 연구·사업 발굴 조직 'AI 센터'가 뒷받침한다. 회사는 연구개발(R&D)과 사업 실행 부서를 연결한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이 조직은 300여명의 AI 전문가가 AI 기술력·플랫폼·비즈니스 활용·프로젝트 딜리버리 등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한다. 직무로 보면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지니스 디벨로퍼, 프로덕트 매니저 등 11개로, 전 분야에서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AI 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생성형 AI 오퍼링'을 앞세워 서비스와 기술, 사후 관리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기업 고객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본 계약 체결 등 성과 달성을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일례로 여러 거대언어모델(LLM) 중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멀티 플랫폼과 검색증강생성(RAG)을 기반으로 사내 데이터를 연동하는 지식 레이크 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산업의 최대 리스크인 보안 솔루션을 연구해 개념검증(PoC) 단계에서 한발짝 나아갔다.

◆ 차세대 금융 시장 공략…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사업에 주목

최근 주목되는 사업은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이다. AI 센터 설립 이후 대형 금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 CNS는 국내 기업 최초로 대규모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주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으로, LG CNS가 시스템 설계 총괄을 맡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이다.

이같은 실증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디지털 자산 인프라 플랫폼 '기틀'도 지난 10월 출시했다. 이는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자산연계(RWA) 등 서비스를 구축할때 필수 기반이 된다.

현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등 해외 기업 5곳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 화폐 사업을 지원한다.

LG CNS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로봇전환(RX), 사업 수행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수능 시즌 맞아 멤버십 혜택 확대

16일~ 20일 '유플투쁠 플러스 위크'
통합 앱 '유플러스 원'서 쿠폰 제공
장기고객 대상 IMAX 영화 관람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대표 제휴처 '공차'에서 11월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수능 시즌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유플투쁠 플러스 위크'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들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식음료·쇼핑·여행 등 멤버십 혜택을 확대한다.

고객들은 LG유플러스 통합 앱 '유플러스 원'에서 원하는 제휴사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제휴사별로 고객 1인당 1회 제공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 기간 중 발급이 마감될 수 있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1 ▲공차 최대 50% 할인 ▲파리바게뜨 최대 8000원 할인 ▲백미당 베스트 메뉴 4종 1+1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쇼핑 분야에서는 ▲다이소 최대 3000원 금액권 ▲롯데마트 제타 온라인몰 최대 50% 할인쿠폰 ▲스파오 최대 1만5000원 할인 ▲오뚜기몰 1만5000원 할인 ▲풀무원 1만원 할인 등을 마련했다. 여행·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서울랜드 파크 이용권 55% 할인 ▲롯데월드 종일권 47% 할인 ▲여기어때 국내 숙소 3만원 할인 ▲롯데렌터카 G car 대여료 60% 할인 ▲NOL티켓 '브래드 윌스 사진전' 최대 50% 할인 ▲빛의 벙커·빛의 시어터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장기 고객을 위한 아이맥스(IMAX) 스페셜 데이는 멤버십 적용 지역을 전주와 부산까지 넓힌다. LG유플러스를 10년 이상 이용한 VVIP 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청 고객수는 총 4000명이다.

상영작은 '듄: 파트 3'다. 장기고객이 예매 부담 없이 수능을 마친 자녀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아이맥스관을 전체 대관했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유플러스원 앱에서 응모할 수 있다. 행사는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CGV 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 ▲전주효자 ▲부산 센텀시티 등 전국 5개 IMAX관에서 진행된다. /조민선 기자

"한 마디로 나만의 AI 작업공간 만든다"

메타, 뮤즈에 '스페이스' 기능 도입

메타가 이용자의 말 한마디로 일정표와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선보였다.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개인의 목적에 맞는 작업 공간을 직접 구성하고 외부 서비스의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6일(현지시간) AI 비서 애플리케이션 '뮤즈(Muse)'에 맞춤형 작업 공간 기능인 '스페이스(Spaces)'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일정 관리 도구나 프로젝트 보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스페이스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다면 스페이스는 실제 생활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도구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여행을 준비하는 이용자는 항공편과 숙소 예약 정보, 날짜별 일정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여행 계획표를 만들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관리 보드부터 고객별 업무와 마감일, 청구서 등을 정리하는 작업 공간까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개인화 기능도 강화했다. 이용자는 생성한 스페이스를 앱의 사이드바나 메인 탭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평일에는 업무 일정표를 전면에 배치하고 주말에는 개인 일정 관리 화면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메타는 이번 기능과 함께 AI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자체 AI 모델 '뮤즈 원더(Muse Wonder)'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특화 모델을 뮤즈에 적용해 이용자의 과거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유럽 냉동설비 해킹… 과기부, 국내 사업자 보안 점검 당부

초기 비밀번호 바꾸고 관리 강화 권고

유럽에서 사업장의 냉동 설비를 노린 해킹이 잇따르자 정부가 국내 사업자에 보안 점검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냉장·냉동설비 해킹 사례와 보안 권고사항을 민간 사업자와 협·단체에 전파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협조 요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도 해외 사례와 보안 수칙 전파를 요청했다.

유럽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수백곳의 설비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1~12일 프랑스 대형마트에서는 해커들이 설비 온도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냉각기에 낀 성에를 녹이는 제상 기능을 악용했다. 일부 매장은 내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 보관 중이던 식품을 폐기했다.

이달 들어서는 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사업자들에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설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때는 가상사설망(VPN)을 쓰고, 제조사 보안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조민선 기자

따능AI,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취득

따능AI 크레딧 상품 5종

인공지능(AI) 아트 교육기업 따능스쿨은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따능AI'가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심사를 거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발급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은 제품·서비스는 공공조달에서 우대 대상이 된다.

따능AI 크레딧 상품 5종이 확인서에 올랐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AI 소프트웨어 품목에 등록돼 200크레딧부터 10만 크레딧까지 기관 규모와 교육 인원에 맞춰 고를 수 있다.

따능AI는 이미지·영상·음악 생성 및 음성 합성 등 여러 생성형 AI의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한국어 환경에 맞춰 설계됐고, 계정 발급과 크레딧 배분을 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김보민 기자 kbm@